

소장님, 김성진 소장님, 학교를 무사히 마치도록 도와주신 경종남 소장님, 박찬규 소장님, 머리 나쁘고 정신없는 저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끌어 주신 허동식 선배님, 김윤기 부장님, 차분한 마음으로 즐겁게 일할 수 있게 해주신 박윤수 차장님, 나준영 과장님, 제철규 이사님, 부족한 저를 위해 어려운 일도 처리해 주시고 항상 집 앞에서 기다려 즐거운 저녁을 함께하는 양광모 선생님, 정다형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제가 있기까지는 변함없이 용기와 정신적 지주가 돼 주었던 친구들!!! 최창호, 김영구, 김준철, 주명관, 박성진, 진심으로 감사하고 죽는 날까지 같이 재미있게 지냈으면 좋겠다.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면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분들이 지금은 안계시기에 서운하기 그지없습니다.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할아버님, 할머니님, 아버님 영전에 이 논문을 바칩니다. 또한 항상 차 조심해라 아직도 나이든 자식만 걱정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박여임 여사님, 사위 자랑만 하신다는 장인어른, 장모님 감사드립니다. 형님과 형수님, 처가의 형님과 아우님들, 처남, 처제, 조카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회사일로 바쁘다고 집을 늦게 들어오는 저 대신 집안을 지키고 언제나 아낌없는 후원과 내조를 보내주는 사랑하는 아내 정안아님께 감사와 더불어 이 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늦게, 술에 취해 들어오더라도 반갑게 안아주는 잘생긴 우리아들 최지민과 끝없는 애교와 사랑스런 몸짓으로 아빠를 기쁘게 해주는 우리딸 최지안 아빠가 고맙고 너무너무 사랑한다.